

119

## 버스 운전기사에게 발생한 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

성별	남	나이	40세	직종	운전수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 1 개 요

김○○(남, 40세)은 1978년부터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1998.5.9.부터는 마을 버스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1997.12.20부터 진행하는 운동실조, 어지럼증, 구음장애로 신경과 외래에서 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의 진단하에 진료를 받고 있으며 상기 질병이 19년 간의 운전 업무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2 직업력 및 작업환경

김○○이 제출한 이력서에 의하면 1962년 육군을 제대한 후 1978년부터 1998.3.31.까지 서울시내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1998년 근무하던 버스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고용보험센터에 취업의뢰를 하던 중 마을버스회사에 취업이 되서 1998.5.9.부터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김○○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담배는 전혀 피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형제는 삼형제로 모두 건강하며 자녀는 1남2녀인데 역시 모두 건강하다고 한다. 발병 전 고혈압이나 다른 질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한다. 의료보험 자료에 의하면 1998년에 오래된 심근경색증으로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에서 진



료를 받았다.

#### 4 고 찰

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은 뇌 특히 소뇌부위의 위축으로 인해 보행장애, 운동실조 등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크게 척수소뇌위축(Spinocerebellar atrophy, SCA)의 일종이다. 매우 드문 질병으로 10만명 당 0.1~0.2 정도 수준의 발병율을 보인다. 김○○의 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의 발병연령이 59세로 유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동 질환의 발병시기가 통상 40대 이전이라는 점과 상염색체 우성 유전을 함에도 가족 중에 아무도 동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전형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렇다면, 발병원인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유전형이 아니고 90%를 차지하는 산발형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산발형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정한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진 바가 아직 없다. 특히 화학물질이나 작업조건 등 직업적 요인에 관련되어 발생하였다는 연구는 없는데, Frumkin의 보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김○○은 이 황화탄소 등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전혀 없다.

#### 5 결 론

이상의 조사결과 김○○의 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은 유전적 소인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